

\* 2021년 9월 12일 주일 오전예배

\* 성경 : 잠 4:23

\* 주제 : 네 마음을 지키라(기도와 마음) - (4)

잠 4:23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 들어가는 말 ]

살롬!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했죠? 한 주간 안에 생긴 일은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일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습니다. 화나는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기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라고 했죠? ‘믿습니다.’하고 그냥 참습니까? 부모를 잘 만난다는 것은 우리 삶이 부모의 생각을 읽을 줄 알고, 그 생각을 읽을 줄 알아도 내 마음과 화합을 해서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지킬만한 것 중에 다 마음으로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죠? 그 마음을 지킬 때 근거가 무엇입니까? ‘믿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까’라는 글자를 붙이고 하는 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났다는 것은 답이 다 있습니다.

##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받는 시험의 특징

- 문제를 주신 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탁하게 만드는 것 / 나는 항상 ‘어디에’ 있는가?
- 주님과 아버지와 연합된 ‘너희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 겪은 일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넘어갔어요? 좋은 일, 나쁜 일 다 통과했는데, 어떻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왔게 되었냐고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아이큐가 높아서? 아닙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요, 우리는 항상? 마음을 지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 밑에서 성장할 때에 좋은 말로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말도 있지만, 자녀가 들으면 겪으면 섭섭해 하고 울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

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우리도 어렸을 때에 참 귀하게 귀하게 컸는데, 딱 한 번 며칠 밤을 운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것 진짜 맞아?’ 뭘 잘못했는데, 태어나서 가장 크게 기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나를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돌보는 사람이, 나를 집에 있는 장독대에 큰 항아리 속에 감췄습니다. 나이로 봐서 숨을 곳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한 두 세 시간을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몰래 장독에서 나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제 다른 데 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뭐라고 하면서 울었느냐?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맞아? 나를 어디 가서 주워 다가 기른 아들이라고 맨날 주워에 놀려먹더니….’ 옛날에는 많이 놀려 먹었죠? ‘너 주워 왔다고’ 몇 날 며칠을 서운해서 한 상에서 밥을 먹는 데도 엄마 아빠가 보기도 싫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혼낸 것입니까? 잘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성경 구절을 어디를 찾습니까? 염려가 될 때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주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기면 내가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점점 포기하게 만들고, 그 문제를 주신 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몸에 어떤 충격이 왔는데, 아이는 자기에게 직접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충격은 어머니가 받았지, 아이는 아주 미세한 충격을 받아도 놀랍니다.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해라?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만들어서 나를 키우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발가벗고 뛰어나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겪는 염려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염려가 해결이 나는 염려입니까, 불가능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염려입니까?

여러분들, 금년도 마지막 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아델포스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는 안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르는 찬송가가 뭐라고 했죠? 1절만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것 내가 똑똑해서다?’ 그래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은혜는 몸 밖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망을 당한 죽을 자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

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가 1년 365일 마지막 주에도 해결이 안 났을지라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시는 은혜, 감싸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지나가는데, 어려울 때는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과정을 겪었고,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당할 일이 생겼습니다. 시험당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하지?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맞아? 예수 안에 있는 것 맞아?’ 연합사건이 전혀 다 사라지고, 나만 홀로 동그랗게, 조그마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항상? 그런데 나라고 하는 위치가 정해지지 않고 문제를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13절, 13이라는 숫자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죠? ‘금요일’에다가 ‘13일’하면 아주 년덜머리를 냅니다. 한국 사람은 4자가 붙으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4’자를 보고 ‘넉 사(四)’자로 보고 행복하고, 누구는 ‘죽을 사(死)’자로 보는 이것이 참 희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할렐루야! 야~ 그렇지!’하고 감탄사를 지어내는, 감탄이 속에서 터지게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봐 봅시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전 10:13)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에게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깨닫습니까? 아닙니다. 힘들 때는 감당이고 뭐고 없습니다. ‘감당’ 다음에 ‘불감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불감당이다.’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아주 불만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안 보시나요? 다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겠느냐? 귀를 만드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너는 비밀이라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나에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다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돌아다보고 웃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수준밖에 안 됐나?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었지?'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우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딪혀 옵니까? 부활로 연결하신 분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은혜로, 부활로 만드신 분,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고, 그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존재니' 그 안에 내가 있는데, 다 잊어버립니다. 항상 무엇만 남습니까? 나만 남습니다, 나만. '나는, 나는, 나는' 늘 말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쓰는 단어 중에 '나'라고 하는 단어같이 행복한 단어가 없고 무서운 단어가 없다. 전부 다 '나는 나는'하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나냐? 아니면 아무도 없는 별거숭이 나냐?' 뭐라고 읽었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할 때는 감당하고 있었어요? 나가 자빠져 넘어지고, 울고, 불평을 터뜨리고 다 했죠? 지난날 생각하면 창피합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었습니까? 없었죠. 이제는? 아주 느긋하죠? 잘못된 일 없었나요? 있었습시다.

그래도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도 준 것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험이 아니라, 아주 고난도입니다. 성장하는 만큼 큰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는 문제가 올 때에 별거숭이 '나'를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나? 주님과 연합한, 아버지와 연합한 '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만들어서 부딪치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같이 계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삶에 적응할 때까지, 그것을 보고 '성장 기간, 훈련을 받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기도를 지금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 '너희의 모든 염려를? 너, 누구와 같이 있지? 나는 누구와 같이 있지?' 그것을 생각나게 만드시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내 위치, 내 존재, 나의 삶, 나의 길이 나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은 미쁘사, 충성 되사"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떤 '너희가'입니까? 나 혼자만 남아서 '너희가'냐? 아닙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혼자 '죽네, 사네' 뛰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면서 어려운 문제가 오면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화가 나게 되면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 봤죠?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데 나는 소리를 질러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누구처럼 소리도 한번 질러보고 싶

은데, 한 번도 소리를 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혼자 끙끙 앓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게 살아납니까, 구절이? 어려울 때, 시험 당했을 때, 이 구절이 살아납니까? 빨리 구절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생각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와서 나를 감싸주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성경 구절을 읽어도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구절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이 구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런데 부모를 잘 만난 우리에게는 뭐라고 위로하고 계십니까? 감당할 시험 거리를 주셨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주셨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당시에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런데 여기에 헬라어 성경에는 ‘너희와 함께 감당할 시험 거리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한글 성경은 ‘너희로’라고 나오지만 ‘함께’라는 단어가 빠져있습니다. “너희로 함께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주님이 함께 감당해주십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부딪혔을 때도 내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땀 흘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함께 길 가다가 숨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숨은 적이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숨었을 때, 운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울지 않고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숨으셨다고 합니다, 세 살 때. 숨으셨는데, 다른 집 애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안 울고 그 자리 서서 주위를 뺑 돌아보고 있더라요.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그래서 ‘저놈은 참 별난 놈이다.’라고 하셨다는데, ‘별난 놈’입니다. ‘별에서 난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니까 문제가 오면 벌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비가 안 오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기도하면서 종에게 물어봅니다. ‘구름이 보이느냐?’ 한나절을 해도 구름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종이가 뭐라고 하느냐? ‘손바닥만 한 구름이 하늘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아합 왕에게 뛰어가면서 ‘비가 온다.’고 했는데, 뛰는 동안에 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

니다.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징조가 나와야 됩니까? 내 존재화 된 것을 상기하면 됩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 ❖ 하나님의 핏줄들에게 주어지는 ‘생각나게 하는’ 은혜, 주님과 한마음이 되게 함

-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고로, 너희 마음에 예수의 생각과 사상과 삶에 이르는 마음을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아빠, 호 파테르(’Αββᾶ ὁ πατήρ)’, ‘천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 하나님 핏줄들의 삶의 근본 세 가지 - 주님과 함께 산상수훈, 주기도문,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가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팔자소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운명론’이라고 합니다.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13절, 늘 얘기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2-13)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아니고 ‘그 이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 믿게 됐느냐? 12-13절에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 믿는 사람들은 혈통이나’ 혈통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몸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살다가 죽을 인생의 마음에는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그 기준이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정이나 혈통’ 늘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가 몇 대를 예수 믿은 집안인데, 몇 백 년 되지 않았냐? 오백 년 된 집안이 아니냐? 모태신앙이다.’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서 출생하고 태어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 없는 간증을 통해서 실제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던 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도통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는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핏줄이다. 하나님의 핏줄이다.’ 내가 완전히 뭐가, 머리가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서 태어난 자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

까? 육신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모태로부터 나 바울을 택 하셨다’고 했는데, 모태가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가니까 ‘창세 전에,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안에 있었던 존재’라고 나옵니다.

핏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핏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를 내게 나타냈는지, 족보가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우여곡절은 나는 소설을 수십 권, 수백 권을 써도 안 됩니다. 소설 대신에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계속 성경을 푸는 것입니다. 책을 풀어서 쓰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 됨입니다. 왜? 똑같은 존재를 만드는 것이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그렇게 견디고 태연하시죠!’ 아닙니다.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나는 뭐가 뛰어나서 ‘아, 까짓 거’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히 5:7-10)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인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죽음에서 오직 홀로 구하실 아버지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통곡했습니다. 성경에는 몇 번 통곡한 것으로 나오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실제 많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우는 눈물은 어떻게 나오니까? 뜨거운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뜨거운 눈물’ 나는 그래서 ‘지구상에 이렇게 뜨거운 눈물도 있구나!’ 온도계로 재면 쇠도 녹는 몇 천도 같습니다. 속이 막 바글바글 끓는 데서 나오니까. 내가 포기해야 되니까.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도 똑같은 육신의 소욕을 거쳐 왔습니다. 그리고 본이 되어 주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을 배

웠습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멜기세덱과 똑같은 제사장으로 일을 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만 나만 이렇게 힘들게 주냐? 다른 사람 보니까 나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안 주시더라. 그런데 왜 나만 그것을 주느냐고’ 그 ‘나만’이라고 하는 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만이라고 하는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만’입니다. 다 예수 안에서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도 열두 가지 기질이 있다’고 했습니다. 열두 가지 기질. 열두 가지 기질 중에 가장 나쁜 가룟 유다의 기질도 안 준 것이 아닙니다. 다 주었습니다. 단지 선악을 분별할 때 ‘이게 악이다.’ 당장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잠언 16장 4절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잠 16:4-5)

‘여호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다 쓰기에 합당하게 지으셨죠? 그런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악하게 살라고 나왔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똑같이 벌을 다 받게 된다.’ 그런데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었다’라는 것에, 나와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것입니까, 안 거쳤습니까? 거쳤습니다. ‘나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봐라’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똑같이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그러한 인생들 속에 우리가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다가 죽을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의 삶,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악한 전부를 다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고난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겪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순종과 나타남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통곡한 그분과 같이 있어서 걱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킬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이 누구 마음이나? 내 마음? 아닙니다.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들,



지구상에 아버지가 욱신의 아버지가 있고, 양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사탄이 애비 노릇하는 자식이 있고,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 노릇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말씀을 듣고,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상태까지 갔는데, 마음에 계속 뭐가 생각나게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요 13:2)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아라, 나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돈을 얼마 받아야 돼’ 생각을 자꾸 넣어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것이 가롯 유다의 팔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팔아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우리도 합니다. 안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생각을 넣었다가 빼었다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갈 4:6)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고로’ 나는 그렇게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 고로’ 내 마음에 누구의 성령을 넣어줬습니까? 마귀 사탄의 영을 넣어주지 않고, 아들 예수의 생각과 사상과 삶에 이르는 마음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핏줄이라고 하는 것을 안 이래에, 이 구절을 내가 봤을 때에 방방 뛰었습니다. ‘야, 이것은 황재수다? 아니다. 이것은 운명이구나, 운명!’

만약에 옛날 욱신의 모양과 욱신의 몸으로, 욱신의 마음으로 살았던 나를 돌이켜보게 하신 것입니다. 별사람 없다, 별사람 없다. 아니요, 별사람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느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불렀을 뿐입니다. 마귀 사탄의 자식들도 ‘하나님’하면, 야고보서에 보면 ‘겁을 낸다.’ 그런데 돌아서면 ‘하나님? 뭐?’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사는 전 생애가 아니라,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시한부의 마음이 아니라 ‘아!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도’ 우리 마음에 무엇을 넣어줘야 돼요? 아바

지 뜻대로 행했던 그분과 한마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산상수훈 다 좋습니다. 이제는 삶의 근본이 ‘주님과 함께 산상수훈, 주기도문, 새로운 피조물’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 ❖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 아래서 훈련받는 아들들

- 창조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훈련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5월 달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창조자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는 훈련을 해라!’ 감당치 못할 시험 거리가 지금도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100이라고 하면, 100을 다 안 주십니다. 누구에게는 10%, 누구에게는 20%, 누구에게는 50%,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안 한다면, 그것은 이미 지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이 이랬다저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업, 다운) 하고, 좌우로 회전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생은 정함이 없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선 선악 간에 이 훈련을 주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야,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이게 과연 좋은 거야 이거? 나 정말 필요한데? 이게 뭐지, 이게? 내가 가져서 뭘 하지? 소유해서 뭘 하지? 왜 가지게 했지? 왜 보게 했지?’ 이러한 기준이 다 나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사람 속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사람 속이 빈 것입니까? 텅 비었어요? 마음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 상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러면 ‘아버지’라고만 부르느냐?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죄와 사망,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요 아들(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4:7)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91년에 독일에서 와서 세미나 할 때, 이 구절이 나올 때 ‘여러분들 재산이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분이 누구예요?’ 지구에서 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지구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아직도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 혼자입니까?

부자가, 왕이 여행 중에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돈을 가지고도 못 사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동네를 바꿨는데, 지금도 그것을 좋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고 있지? 그 사람은 왜 거기에 가 붙어 있지?’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고? 내가? 아닙니다. 마음을 움직이면,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어찌 그 생각을 모르겠느냐’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6절을 가 봅시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

‘내 형질’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뼈와 모든 생각을 만들기 전에,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누가 눈으로 봤습니까? 주님이 아버지 눈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인 줄 알았더니, 살다가 죽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어디에 써놨습니까. 우리는 각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며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습니까? 내가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과정을 내가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지금까지 지내온 사건을 숫자로 헤아리려고 해도 모래보다 많고 내가 깎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시 139:17-18)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출생, 만들어질 때부터 이 땅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친자녀인 것을 알고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그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써 있는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느냐고 삽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 주님과 연합한 상태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까지도, 다 만들기 전에,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 너는 나하고 연합된 창세기 1장 26절의 사람이 될 것까지도, 주님과 함께 어떻게 살 것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열두 가지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느긋해 보이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에서 오만가지 생각이 움직였고, 이기적이었던 것 다 떠오릅니다. 안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잘라내셨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핏줄이라니?’ 깨닫게 하는 날도 써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방방 뛰고, 속으로 난리가 나고 할 때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모르신다고요?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쓰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너 가만히 있어라, 오늘은 너희 가만히 있어라.’ 생각을 넣어줍니다. 마음에다가. ‘너, 어디 가서 누구하고 오늘 싸워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컴퓨터가 나와 있는 것을 압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대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나르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루 종일 움직여서 됩니다. 사람이 하면 허리가 통증이 와서 못하는데, 로봇은 어떻게 합니까? 쇠가 마모가 되어 헐거워지기 전까지는 하루 종일 합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왜 화가 안 나요? 로봇이 감정이 없나요? 하라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아델포스에서 이 짓을 해라’ 하면, 그냥 합니다. 미워해야 됩니까? 그 일 자체를 보는 겁니까? 일 자체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일 자체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고, 나가서 팔라고 하니깐 그냥 갔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어올 때,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할 때는 ‘나는 절대 무슨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믿으시라고’ 안 믿어요, 나는. 믿는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하면 싸움이 날 테니까, 믿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성격이 그 모양이냐? 그 사람 왜 그렇게 그러고 사느냐? 왜 그렇게 나와 싸우려고 하느냐? 왜 그런 일이? 왜 그런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나’라고 하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다 그것이 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합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하고 결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 ‘너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제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부터 ‘나’라는 존재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 아델포스에서 그런 일이 있느냐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왜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가면 이런 일을 보느냐? 보고 있잖아요. 정해진 각본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까? 정해진 각본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우리가 망합니까? 복음의 세계화를 하는데 방해가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전부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다가 죽을망정,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살다가 죽습니다. 왜? 자연사니까, 아들딸도 죽고 손자도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떠날 생각을 안 했습니까? 애굽을 떠날 생각 안 했습니

다. 왜?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안 넣어주면 ‘여기가 종사오니’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또 세상의 바로가 당대 최고의 왕입니다. 최고의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9장 14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롬 9:14-16)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무엇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고, 왜 나를 못살게 굴고,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이 팔자입니까? 이 꼴입니까?’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불쌍히 여길 자는 누구입니까? 히브리 민족이었습시다.

출애굽 할 히브리 민족은 불쌍히 여기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본토 주인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시다. 세상 말로 개떡같이 여기셨습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도구로 생각했습시다.

그래서 ‘그런즉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원했다.’ 아닙니다. 뎡다고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3500여 년 전)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을 너희가 고난과 훈련을 주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지구상(그 당시의 세계)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압케 하시느니라”(롬 9:17-18)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 아버지 앞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어떻게 가요?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길 자는 우리였고, 강박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롬 9:19)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이 뭘데? 내가 누군데?’하고 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왜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롬 9:20-21) 누구는 요강도 만들고, 더러운 오물 담는 그릇도 만듭니다. 누구는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듭니다. 아니 찻잔 하나에 몇 억 간다고 하면 믿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흙을 가지고 누구는 오물 담는 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통이 ‘내가 왜 똥통이냐?’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팔자였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 간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이다.’ 다 정리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는 나 잘났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하고 말하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롬 9:22) ‘아우저거 그냥 순 악질이고 말이야. 나쁜 짓만 골라 가면서 해, 왜 저런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지? 왜 내 눈앞에 있지? 왜 나를 못살게 굴지?’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확보하십시오.

## ❖ 장성함에 이르게 될 긍휼의 그릇으로서 ‘주 안에서 받는 훈련’을 감당케 하는 은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더니 누구에 의해서 고난 받으십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전부 다 누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자식들’하면 급수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됩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마귀 사탄은, 저희가 왕으로 섬기는 존재입니다. 모든 샤머니즘, 인간이 만든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는 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살다가 죽을 인생들 위에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선과 악에 관한 전부를 훈련받아야 됩니다. ‘아, 나는 그런 거

안 해,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내가 누군데? 나, 안 했어' 할지라도 생각에 오는 것을 어떻게 정리 할 것입니까? 선악 간에 악은 버리고 선만 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삶을 살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고, 우리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진노의 그릇이었습니다. 정도의 차이 '나는 좀 선하게 살았어, 난 그렇게 안 했어' 하더라도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말을 서슴없이 하고 살았습니다. 왜? 내가 커야 되니까,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더럽고 치사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 너도 그 과정을 겪어야, 살다가 죽을 인생의 처절함을 겪어라 겪어' 그래서 때가 되니까 주님과 연합을 시키고, 연합되면 끝났느냐? 아닙니다. 훈련을 또 받아야 됩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롬 9:23-24) '또한 영광 받기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기로 예비하신 공훈의 그릇,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의 어떠함을, 존재의 어떠함을, 인생의 어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러낸 사람이 우리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이 쓸려고 왕을 삼은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 때문에 짧게 끝나고 다음 주에 인생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고 아버지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더럽고 치사하고 메스껍고 아니꼽고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존재였구나!'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정리해 주시고 몸으로 정리해 주시는 훈련이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서 저 모양을 하지? 저게 자기 의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너는 오늘 뭐 해라'하면 우르르 갔다가 우르르 가고 그러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릅니다. 마음에 누가 뭘 집어넣었으니까?

우리는 아무 인생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각본대로 만들어지고, 각본대로 사는 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아우, 저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미달'

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미달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가 되게 되어 있는 공훈의 그릇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너무 뛰지 말고, 슬픈 일이 생긴다고 좌절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감당하는 훈련이 은혜와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